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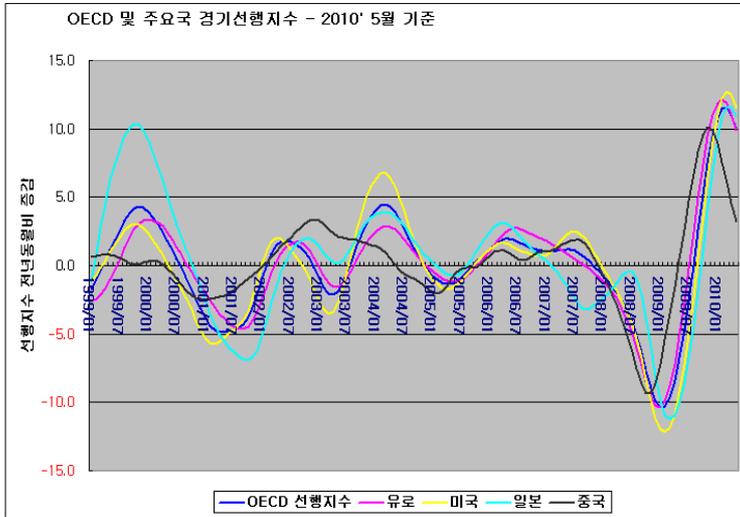
2010 - 07 (통권 22호)

서 평 2010. 7. 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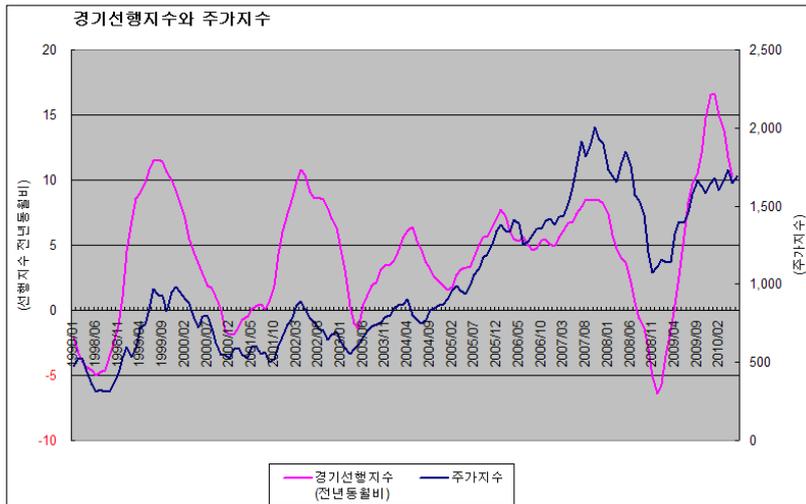
## 투자선행지수로 살펴본 주식시장

사단법인 광주경제문화공동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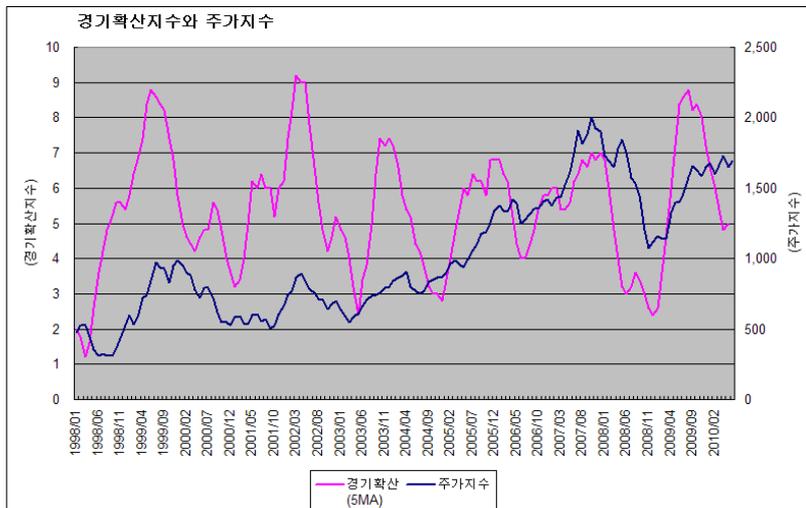
# 1. 주요 경기 및 금융지표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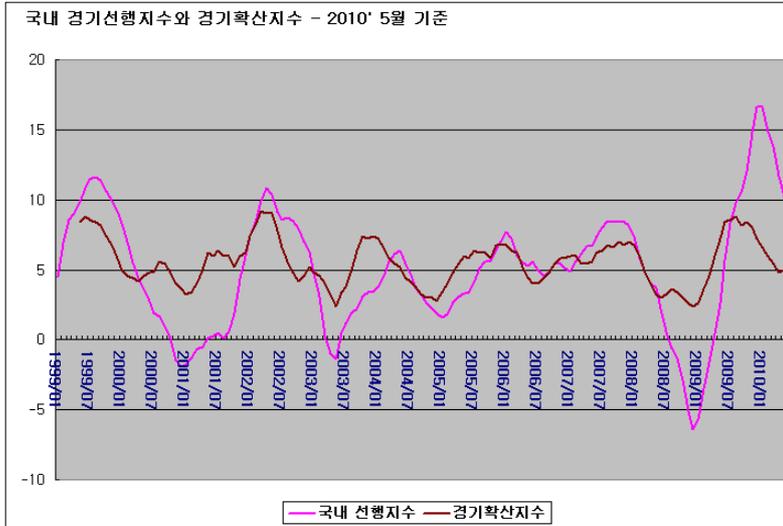
- OECD 및 각국 경기 선행지수 둔화세 지속
- 기존의 미국에 의한 성장 사이클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지 주목
- 중국의 지속되는 경기 둔화세 주목



- 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과연 언제까지 강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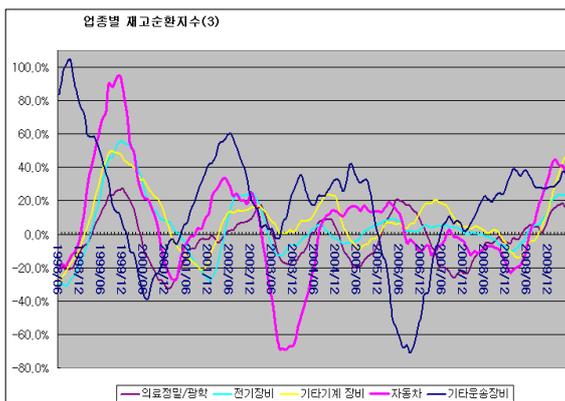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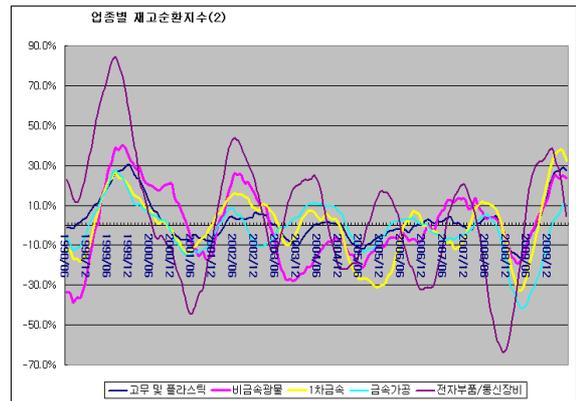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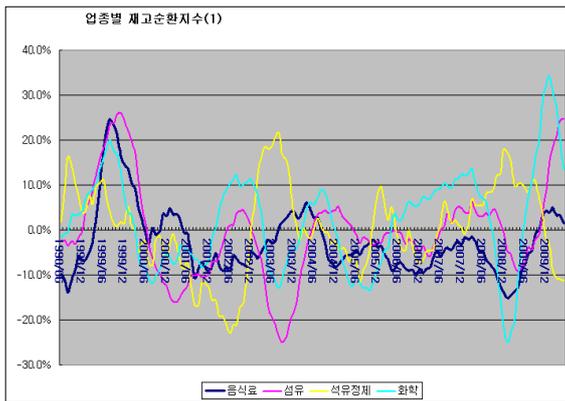


- 경기확산지수의 하락이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나 상승으로 반전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다소 이름.



- 확산지수의 반전 후 선행지수도 확산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나 추세적인지, 반등인지의 여부는 다수의 지표와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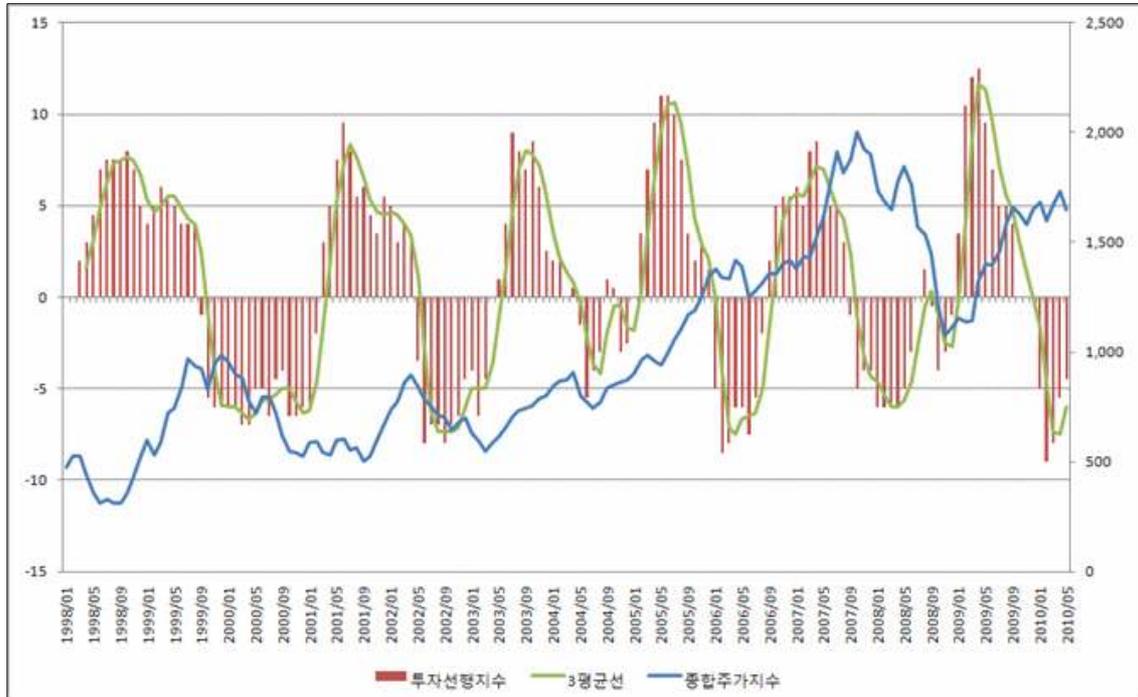
자료 : OECD STAT, KOSIS, 한국은행, (사)광주경제문화공동체



- 산업생산 및 기업의 실적과 관련성이 높은 재고순환지수도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 둔화내지, 고점 후 하락 반전하고 있어, 예의 주시하며 살펴봐야 할 것임.

- 심리에 대한 반응은 극도의 실망감에서 표출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점차 이러한 실망감이 주식시장에 표출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양상

## 2. 투자선행지수



자료 : (사)광주경제문화공동체

- 당사가 자체 개발한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각종 경기, 심리, 금융 등의 지표들을 조합하여 만든 투자선행지수는 현재도 (-)국면으로 매수 유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. 투자 선행지수가 (-) 국면에서 (+)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식시장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며, 현 국면에서는 21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테마위주의 단기 대응은 가능하나 금융시장 환경, 유동성 및 실적에 기반을 둔 중기 이상의 투자는 관망의 자세가 바람직해 보임.

본 보고서는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추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, 분석 당시 신뢰성 및 객관성에 의거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 작성된 "(사)광주경제문화공동체" 의견일 따름이며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당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